

마음은 우주의 근본, 만상은 본체이고 한 생각 뛰어나온 현상은 그림자이네 이 마음 고요 속에 착한일 생각하면 저울 속 알곡처럼 언행이 일치하리.  
-법구비유경-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삼천사 주지스님의 하루

새벽 4시, 화선에 뜬다. 2시간의 좌선을 끝낸 후 아침공양을 하며 그 날의 일정을 체크한다. 은평구립도서관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7시 반. 직원회의를 통해 전날의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그에 따른 업무를 지시한다. 3시경부터 시작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직원회의는 가끔씩 30-40분 이내에 마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법인인

대회에서 불교 및 지역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불교복지유공자상을 받은 은평노인복지관장 성운스님(삼천사 주지). 스님의 하루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화, 수요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동국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다. 현재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2학기를 마친 상태. 강의가 없는 날에는 은평구청에서 법회를 열거나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만난다.

성운스님의 하루는 웬만한 기업의 CEO(전문경영인)보다도 더 바쁘다.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운스님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만 해도 은평노인복지관, 치매단기보호센터, 은평구립도서관 등 10곳이나 된다. 게다가 '종교



덕원 사무실에 도착하는 10시부터는 간단하게 직원회의를 열고, 인력원이 운영하고 있는 치매단기보호센터나 인덕 어린이 집에 들려 이곳 어르신이나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살핀다. 점심공양 후 오후 4시까지는 삼천사에서 하루 평균 50여명 신도들의 상담을 받는다. 이후에는 구청회의나 구치소 법회, 은평구사암연합회 법회 등에 참석하고, 지역 행정당국 관계자나 복지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 5일 전국불교사회복지

대표이사, 서울구치소 종교교화위원회장, 푸른 서울 가꾸기운동 자문위원 등 불교계 정부·시·구에서 맡고 있는 직책만도 15개에 이른다. '부처님의 자비실현은 복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시나 구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까닭도 불교위상을 높이고,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한 점을 차에서 보충할 정도로 바쁘게 활동하는 성운스님. 스님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포교인의 사표(師表)로서 부족함이 없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 “부처님과 함께하니 감옥도 극락”

### 무기수 최봉종 씨 창작 찬불가 대상 수상

#### 10년전 불교 귀의... 참회의 삶 '노래로'

가시밭길 인생길에 지쳐서 쓰러지며—무명 구름에 가리어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찬불가 나유타'의 가사에서 불교음악 발전과 신인 발굴을 위해 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 '제3회 창작 찬불가 공모 경연대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최봉종(31)씨가 창작곡 '나유타'로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나유타(nayuta)'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다. 최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이 찬불가에는 불법을 만나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친숙한 대중가요 리듬으로 표현됐다. 최씨는 작사 작곡은 물론 직접 노래까지 불러 이날 심사위원은 물론 청중들로부터 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최씨는 17살 때 교도소에 들어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14년째 복역 중으로, 법무부에 수차례 참가 허가

허락을 얻어 이번 대회에 출전,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원래 사형수였던 제가 무기수로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만도 피스럽다"고 말하는 최씨는 "어둠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참회의 기쁨을 얻은 만큼, 생명 다하는 날까지 108배는 마음으로 찬불가 창작에 힘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교도소에서 처음 불교를 접한 후 불교음악에 관심을 갖고 독학으로 음악공부에 매달려 그동안 20여 찬불가를 작곡했으며, 지난해 열린 2회 대회에서도 합창곡 '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불교음악을 공부하며, 마음을 평화롭게

되찾은 최씨는 현재 대전교도소내 악단지휘자로 활동하며 모범수로서 생활하고 있다. 최씨의 대상 수상 계기로 대전교도소 측은 조만간 최씨의 찬불가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반영규 불교음악협회 이사장은 심사평을 통해 "나유타는 참회와 연기의 가르침을 담은 가사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진솔한 감동을 준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는 예심을 통과한 9팀이 동요와 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찬불가를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벌였다. 우수상은 안민경, 박성규씨가 듀엣으로 부른 '자옥과 극락' (혜성스님 작사, 진희연 작곡)이 차지했고, 아름다운 노랫말 상은 '바라 가까이' (이승원 작사, 작곡)에 돌아갔다. 이날 발표된 9곡은 내년엔 CD로 제작되어 불교단체와 사찰에 보급될 예정이다. 여수영 기자 snocoy@buddhapia.com



제3회 창작 찬불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무기수 최봉종 씨.

## 불교 민영교도소 추진 '난항'

### 설명회 무산... 제안서 21일까지 제출해야

불교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5일 개최한 불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에 참가자가 없어 행사자체가 무산됐다. 조계종 기획실 박재현 계장은 "3백여명의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투자를 희망하는 불자들의 문의가 많지 않다"며 "전망이 밝은 민영교도소 사업을 희망하는 불자들의 참여가 있을 경우 조계종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해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법무부가 정한

민영교도소 제안서 제출시한이 오는 21일까지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투자 설명회를 다시 가질 계획이다. 한편 2003년 말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민영교도소는 재조사 포교효과를 볼론 정부가 운영비의 90%를 보조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 유망한 복지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업들이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다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종교계에 수탁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우 기자

### 조계종 비구니 원로

#### 법희 스님 입적

조계종 비구니계 원로인 법희(法喜)스님이 5일 법랍 73세, 세수 84세를 일기로 평택 명법사에서 입적했다. 법희스님은 1917년 생으로 1928년 마곡사 영은암에서 명덕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수덕사, 대승사, 수정암, 감음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년간 안거를 성만하는 등 평생 마음공부에 바쳐 온 선승이다. 69년 명법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7-8대 비구니 7중사에 추



대패 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배출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7일 명법사와 마곡사에서 봉행됐다. 49재는 1월 22일 오전 10시 평택 명법사에서 봉행된다. \*스님법랍 3년 김원우 기자 www.buddhapia.com



### 제주 존자암 수행굴 찾았다

배일 속에 가려졌던 제주 존자암 옛터 수행굴이 한라일보 학술 탐사팀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다. 한라산 영실 동남쪽 해발 1,530m지점에 위치한 수행굴의 길이는 29m로 40여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한라일보 제공 사진=한라일보 제공

## 장군죽비

- ◇스님은 인간과 하늘의 스승(天人), 그런 스님들을 위한 교육 기관인 중앙승가대의 교육 환경은 최하 수준. (22면)
- ◇도난 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전통 사찰, 방범 시스템 강화한다. 방심(放心)과 탐심(貪心)을 미리 막는 것도 중요 제도. (9면)
- ◇인도 불교 퇴락된 불가촉 천민의 아버지 암베드카르 박사 추모 법회에 30만명 동참, 신본 차별 철폐로 이어가기를... (22면)
- ◇삶의 바탕으로 물린 여성 불자 위한 복지 시설, 종교계 중 골짜기. (22면)

### 총지종 내년 창종 30년

#### 법의·가사 새로 제작

총지종총리원장 해암은 26일 오후 2시 부산 정각사 서원당에서 '아사리 법의 금가사' 점안봉사와 봉대식을 갖는다. 총지종은 내년이 창종 30주년이 되는 해임을 기념해 법의와 가사를 새로 제작했다. 대중사의 법의는 온은한 문양의 황금색 법의에 홍가사, 종사 이하 스승들은 자색법의에 황금색 가사로 양 소매 끝단에 각각 3개의 디자인 선을 넣어 삼밀의 숫자적 의미를 나타냈다. 금가사는 태장계를 의미하는 법자 '야'자와 금강계를 의미하는 법자 '법' 자를 각각 가사의 좌, 우에 수놓고 '법' 자가 가운데 쓰여진 육필상을 중앙에 수놓아 목에 걸 수 있게 했다. 이경숙 기자

## 신행수기 공모 15일 마감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7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1년 12월 15일 △대상선착 발표: 2002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 권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2722-4162

## 영어는 공부야 아닌 생활입니다. 2002 겨울 청소년 영어캠프

### 원어민 영어 정교사들과 2주일간 동고동락... 영어 현장 실습·문화 체험



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 영어가 더없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001년 제7차 교육과정과 영어 교육이 100% 회화 위주로 바뀐 시점에서 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한가지씩 영어 과외 학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한가지는 언어는 생활이고 문화이며 습관입니다. 영어 습득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흡수되어지는 것이기에 이문이 없습니다. 캠프가 가장 의미있고 언어 흡수력이 강한 초·중등학생들이 2주일간 원어민 영어 정교사와 완벽한 2중언어 부교사가 동시에 답답을 맡아 하루 24시간 함께 자고 먹고 보고 느끼고 생각을 나누는 현장 체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어를 공부야 아닌 생활로 받아들이는 눈을 스스로 뜨게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3주간의 영어로만 생활은 결코 짧지 않은 언어체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 겨울 영어캠프는 어린이 여름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 최초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불자 청소년들을 위해 동국대학교 후원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영어권 현지에서 살면서 습득하는 것이 영어 배우기의 최선책이라면 이번 영어캠프는 현지에서 가지 않고 국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자신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	내
1월 14일(월)	도착, 숙소배정, 오리엔테이션, Level Test, 친구사귀기 I
15일(화)	오전, 오후 영어수업, 저녁 그룹라업(교제)
16일(수)	오전 영어수업, 오후 스포츠활동, 저녁 특강
17일(목)	오전, 오후 영어수업, 저녁 그룹라업(교제)
18일(금)	오전, 오후 영어수업, 저녁 친구사귀기 II
19일(토)	경주 Study Tour
20일(일)	자유시간, 종교활동, 스포츠활동, 저녁 그룹라업(교제)
21일(월)	스키 타기(무주리조트)
22일(화)	오전 자유시간, 오후 영어수업, 저녁 그룹라업(교제)
23일(수)	오전, 오후 영어수업, 저녁 중간 TEST
24일(목)	오전, 오후 영어수업, 저녁 그룹라업(교제)
25일(금)	오전, 오후 학교수업, 저녁 그룹라업(교제)
26일(토)	오전 영어수업, 오후 리플 TEST, 저녁 그룹라업 발표 및 송별회
27일(일)	수료식, 숙소별인, 휴일인도

- #### 영어캠프의 특징
1. 한반에 15명 미만의 소수정원제 수업
  2. 집중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교육
  3. Canadian 영어교사와 2중 언어보조교사가 함께 하는 수업
  4. 다양한 야외학습 및 문화 현장체험
  5. 캠프 진행기간동안 부모님들을 위해 학생들의 활동 인터넷으로 매일 소개 (www.buddhanews.com)
  6. 캠프 후 3개월간 E-메일을 통한 영어학습 제공